광복을 맞은 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예상 질문 12 | 확인 문제 20 | 정답과 해설

1945년 8월 15일에는 광복을 맞았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월일이 같지만 연도와 의미가 다릅니다. 그 사이에 남북의 분단과 정치적 갈등이 있었고, 선거와 헌법 제정을 거쳐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 학습지의 질문 지도

묶음	중심 질문	질문 번호
광복을 준비하다	독립한 뒤의 나라는 누가, 어떻게 준비했을까?	Q01~Q04
광복 뒤 분단과 갈등	일제에서 벗어났는데 왜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 어려웠을까?	Q05~Q07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다	선거·헌법·대통령 선출은 어떻게 이어졌을까?	Q08~Q12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광복 준비에서 정부 수립까지

1919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941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발표 — 임시 정부
1943	카이로 선언 한국 독립 방침 — 연합국
1945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이행 확인 — 연합국
1945. 8. 15.	광복
1945 광복 직후	38도선 남북 분할 주둔
1948. 5. 10.	총선거
1948	제헌 국회·헌법 제정·대통령 선출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1948. 12.	유엔의 승인 — 유엔

같은 8월 15일, 다른 연도와 사건

광복 이전의 준비, 1945년의 광복, 1948년의 정부 수립을 구별합니다.

1 광복을 준비하다

Q01 독립하기도 전에 왜 '건국 강령'을 만들었나요?

한 줄 답 **일제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독립한 뒤 어떤 나라를 만들지도 미리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건국	나라를 세우는 일.
강령	어떤 조직이 이루려는 목표와 기본 원칙을 정리한 것.
민주 공화정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며, 국민의 뜻에 따라 뽑힌 대표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
보통 선거	재산·성별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나이 등 기본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선거 원칙.

설명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한 나라의 운영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지배가 끝나더라도 누가 어떤 원칙으로 나라를 운영할지 정하지 못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 공화정 수립과 보통 선거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왕이나 일부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듯, 독립 뒤의 나라를 위해 기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고 실제 정부나 제도가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이 따로 필요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준비한 두 과제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독립운동을 이어 감

독립 뒤 나라를 세우기

대한민국 건국 강령

민주 공화정·보통 선거

독립 투쟁과 건국 준비는 함께 진행

독립을 위한 투쟁과 독립 뒤의 국가 운영 준비는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1941년·대한민국 임시 정부·건국 강령·민주 공화정·보통 선거를 연결합니다. 강령은 1948년의 제헌 헌법과 다른 문서입니다.

Q02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이 나오자 바로 독립한 건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두 선언은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 방침을 밝힌 것이며, 그 발표 자체로 일제의 지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낯선 말

연합국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독일 등에 맞서 싸운 미국·영국·소련·중국 등의 나라들. (소련은 Q05에서 자세히 설명)
선언	어떤 입장이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
카이로 선언	1943년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 방침을 밝힌 선언.
포츠담 선언	1945년 일본의 항복을 요구하며 카이로 선언의 이행 방침을 확인한 선언.

설명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이 새 나라를 준비하던 때,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 독립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포츠담 선언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선언은 앞으로의 처리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선언이 발표된 순간에 한국에 대한 일제의 통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광복은 1945년 8월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독립 방침의 발표**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사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	무슨 일이 있었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카이로·포츠담 선언	연합국이 한국 독립의 방침을 밝히고 확인함	선언 당일에 한국의 정부가 출범했다는 뜻은 아님
1945년 광복	일본의 항복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남	그날 바로 통일 정부까지 완성됐다는 뜻은 아님

시험 포인트 카이로·포츠담 선언의 주체는 연합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한 주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입니다.

Q03 일본의 항복으로 광복이 왔다면, 독립운동은 소용없었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일본의 항복은 광복의 직접적인 계기였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독립 의지와 나라를 세울 준비를 이어 온 노력이었습니다.**

낯선 말

항복	싸움에서 패했음을 인정하고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광복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일을 가리킴.
계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기회나 사건.

설명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이 알려지면서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국제 정세가 광복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수십 년간의 독립운동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과 민중은 일제의 지배에 저항했고, 독립을 요구하는 뜻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임시 정부를 운영하고 건국 강령을 마련하는 등 독립한 나라의 기반도 준비했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특수 훈련을 받은 대원들을 국내에 투입하는 **국내 진공 작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실행되지 못한 계획이라고 해도, 독립운동 세력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구체적인 군사 활동을 준비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광복을 설명할 때는 **국제 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상황**과 **우리 민족이 이어 온 독립운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일본군 전체를 항복시켰다고 해도 부정확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다른 나라가 독립을

선물했다고 해도 독립운동의 의미를 놓칩니다.

광복을 볼 때 함께 볼 두 가지	내용
직접적인 계기: 국제 정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항복함
우리 민족의 노력	계속된 독립운동, 임시 정부 운영, 건국 강령 마련,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준비

비유로 이해하기

오래 잠긴 문이 열린 직접적인 계기는 바깥에서 자물쇠가 부서진 일이었다고 해 봅시다. 하지만 문을 열기 위해 오랫동안 힘을 쏟고, 문이 열린 뒤의 생활도 준비한 사람들의 노력까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패전이라는 직접적 계기와 독립운동의 지속적인 노력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제와 직접 맞서 싸우고 외교·교육·문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비유 속 자물쇠가 부서진 일만으로 실제 광복의 원인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1945년 광복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재구성했습니다. (상상도)

시험 포인트 일본의 항복이라는 직접적 계기와, 계속된 독립운동의 의미를 구별하면서 연결합니다.

Q04 국내에서는 광복 뒤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지 않았나요?

한 줄 답 **국내에서도 여운형 등이 조직한 조선 건국 동맹이 활동했고, 광복 뒤에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했습니다.**

낯선 말

여운형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이끈 인물.
조선 건국 동맹	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광복과 새 나라 건설을 준비한 비밀 조직.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광복 직후 조직되어 새 나라 건설을 준비한 단체. 줄여서 건준이라고도 함.
비밀 조직	탄압을 피하기 위해 조직과 활동을 공개하지 않는 단체.

설명 일제 강점기에는 공개적으로 새 나라를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등은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해 국내에서 광복을 준비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은 뒤에는 이 조직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해 새 나라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국외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국내의 조선 건국 동맹은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활동 지역과 조직의 이름은 달랐지만, 일제의 지배가 끝난 뒤 나라를 세울 준비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활동의 중심	광복을 준비한 조직	관련 활동
국외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
국내	조선 건국 동맹	광복 준비, 광복 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건국 준비



임시 정부와 건국 동맹을 한 조직으로 연결하지 않고, 국내외의 건국 준비를 나란히 나타냈습니다.

시험 포인트 여운형·조선 건국 동맹·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연결합니다. 건준이 그대로 1948년 제헌 국회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2 광복 뒤 분단과 갈등

Q05 광복을 맞았는데 왜 남북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왔나요?

한 줄 답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에 각각 군대를 주둔시켰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북위 38도선	북위 38도에 있는 지점들을 동서로 이은 선. 광복 직후 남북을 나누는 경계가 됨.
주둔	군대가 어떤 지역에 머무르는 것.
소련	지금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공화국이 모여 만든 사회주의 국가. 제2차 세계 대전 때 연합국의 하나였음.
군정	군대가 행정과 통치를 맡는 것. 광복 뒤 남쪽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됨.

설명 일본이 항복하자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항복 처리를 맡을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소련군은 38도선 북쪽에, 미군은 남쪽에 주둔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미군이 직접 통치하는 미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북위 38도선은 원래 지도상의 위도선이지만, 이때부터 서로 다른 군대가 담당하는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각자 자신에게 협조적인 정부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남북에 서로 다른 외국 군대가 머무르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하나의 정부를 세우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운동장 정리를 위해 두 선생님이 임시로 선을 긋고 반씩 맡았는데, 두 선생님의 방식과 이해관계가 달라 그 선이 점점 넘기 어려운 벽처럼 굳어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 민족을 돕는 선생님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38도선은 일본군의 항복을 처리하기 위한 경계였지만, 실제로는 두 강대국의 대립과 국내 갈등이 겹치며 분단선으로 굳어졌습니다. 운동장 선처럼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헷갈리지 말 것 이때의 38도선과 오늘날의 군사 분계선은 같은 선이 아닙니다. 현재의 군사 분계선은 뒤에 일어난 6·25 전쟁의 정전 과정에서 정해졌습니다.

광복 직후의 한반도



이 지도는 1945년의 분할 주둔을 나타냅니다.

광복 직후 소련군과 미군이 각각 주둔한 지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의 군사 분계선 지도와는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북쪽=소련군, 남쪽=미군, 경계=북위 38도선입니다. 광복 직후부터 남북에 1948년의 두 정부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Q06 일제가 물러났으면 모두 힘을 합쳐 정부를 세우면 되지 않았나요?

> **한 줄 답** **독립한 나라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나라의 체제와 정부 수립 방법을 둘러싼 의견이 달랐고 미·소의 이해관계도 충돌했습니다.**

낯선 말

체제	정치·경제·사회가 운영되는 기본 방식.
정치 세력	비슷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나 조직.

설명 일제의 지배가 끝나는 것과 새 정부를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였습니다. 광복 뒤에는 어떤 정치·경제 체제를 만들지, 누가 정부에 참여할지, 어떤 방식으로 정부를 세울지를 놓고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소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 어려웠던 까닭	내용
안에서: 정치 세력의 갈등	어떤 체제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부를 세울지 의견이 달랐음
밖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	38도선 남북에 각각 주둔하며 자기에게 협조적인 정부를 원했음

시험 포인트 광복 뒤 정부 수립의 어려움은 국내 정치 세력의 갈등과 미·소의 이해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07 왜 1948년 선거는 남한에서만 실시됐나요?

> **한 줄 답** **소련의 거부로 남북한 총선거가 막히자, 유엔이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유엔(UN, 국제 연합)	제2차 세계 대전 뒤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총선거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선거.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한국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유엔이 보낸 기구.
단독 선거	이 시기에는 남북 전체가 아니라 남한에서만 실시하는 선거를 가리킴.

설명 미국과 소련의 대립, 국내 정치 세력의 갈등 속에서 통일 정부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결정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왜 남한에서만 선거를 했을까?

1 미국·소련 — 한국 문제에 합의하지 못함

↓

2 미국 — 1947년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김

↓

3 유엔 — 남북한 총선거로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

↓ 그러나

4 소련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북한 지역 방문을 거부

↓ 그래서

5 유엔 —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

↓

6 남한 — 1948. 5. 10. 총선거

실제 선거 관리: 미군정 아래 선거위원회
선거 감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처음의 남북한 총선거 계획이 북한 지역 접근 거부로 막히면서,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이 바뀐 과정

1. 미국과 소련이 한국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 미국이 1947년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겼습니다.
3.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로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4. 그러나 소련이 위원단의 북한 지역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5. 그래서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선거를 감시했고, 실제 관리는 미군정 아래의 선거위원회가 맡았습니다.

이 선거는 남한만의 선거였기 때문에 '단독 선거'라고도 불렸고, 통일 정부를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10 총선거가 열렸다'는 말만 보고 한반도 전역에서 같은 선거가 치러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였다는 의미와, 남북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가 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함께 기억할 일 **제주 4·3 사건**

낯선 말

제주 4·3 사건	광복 뒤 제주도에서 1947년 경찰의 발포 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커졌고, 1948년 4월 3일의 무장봉기와 이후의 무력 충돌·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
무장봉기	무기를 들고 지배 세력에 맞서 일어나는 행동.
민간인	군인 등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과 구별되는 일반 주민.

제주에서는 경찰의 탄압 등에 대한 반감과 남한만의 선거·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가 겹친 가운데,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정치적 충돌을 세력 간의 승패로만 보면 평범한 주민들이 겪은 피해를 놓치게 됩니다. 사건 전체를 1948년 4월 3일 하루의 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1948년 5·10 총선거의 실시 지역은 남한입니다. 유엔의 처음 계획은 남북한 총선거였다는 점, 위원단은 선거의 감시를 맡았다는 점을 함께 구별합니다.

3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다

Q08 5·10 총선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5·10 총선거는 제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낯선 말

이승만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을 지냈고, 광복 뒤 정부 수립을 이끌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인물.
국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률을 만들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기관.
제헌	헌법을 처음 만드는 것.
제헌 국회	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만든 국회.

설명 정부를 세우려면 나라의 운영 원칙을 마련할 대표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실시된 총선거는 이러한 일을 맡을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제헌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제헌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선거**와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한 일**은 뽑은 사람도, 뽑힌 자리도 다릅니다.

구별	누가 뽑았나?	무엇을 뽑았나?
1948년 5·10 총선거	남한의 유권자	제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
초대 대통령 선출	제헌 국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비유로 이해하기

반 학생들이 먼저 학급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모여 학생회장을 뽑는 방식을 떠올려 봅시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은 두 단계와 비슷합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오늘날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만, 1948년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또 제헌 국회는 대통령만 뽑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나라의 기본 법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뽑았을까?

국회의원 선출

남한의 유권자 → (1948. 5. 10. 총선거) → 국회의원 제헌 국회 구성

총선거와 대통령 선출은 다른 절차

대통령 선출

제헌 국회 → (헌법에 따라 선출) → 초대 대통령 이승만

5·10 총선거에서 뽑은 것은 국회의원이며, 초대 대통령은 제헌 국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5·10 총선거 → 제헌 국회 구성입니다. '5·10 대통령 직접 선거'로 바꾸면 틀립니다.

Q09 제헌 국회는 왜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을 만들었나요?

한 줄 답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국가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헌법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운영 원칙을 정하는 나라의 기본 법.
국호	나라의 이름.
국민 주권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전문	헌법 맨 앞에서 헌법을 만든 뜻과 목적을 밝힌 글.
민주 공화국	민주 공화정을 정치 체제로 하는 나라.

설명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한다면 국민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정부를 세울 때는 지도자를 정하는 것과 함께, 지도자와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할 원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리인 **국민 주권**에 따라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헌 헌법이 새로 정한 것	제헌 헌법이 이어받은 것
국호 대한민국 · 민주 공화국 · 국민 주권	1919년 임시 정부가 쓰던 국호 '대한민국' · 3·1 운동과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

제헌 헌법 전문에 나오는 '3·1 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은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가리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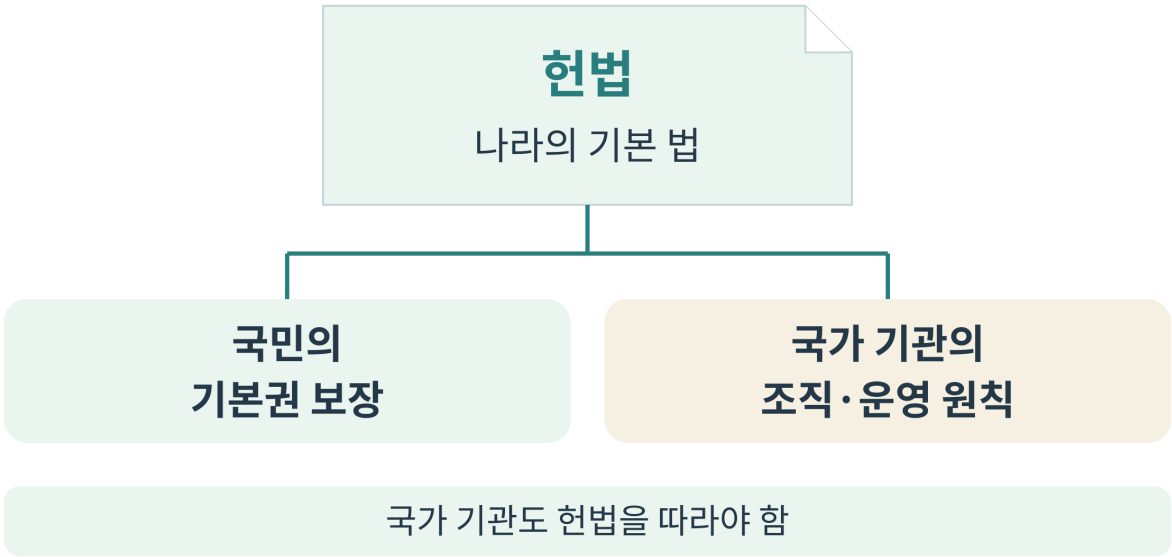
비유로 이해하기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뿐 아니라 심판도 따라야 할 기본 규칙을 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헌법은 경기 규칙처럼 승패를 가리는 규칙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며 국가의 운영 틀을 정하는 법입니다.

헷갈리지 말 것 민주 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고 이후의 모든 정치가 저절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의 원칙을 실제 정치에서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헌법은 무엇을 정할까?



헌법은 국가 기관을 정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헌 국회가 한 일은 국호 결정·헌법 제정·대통령 선출입니다. 카이로 선언이나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는 제헌 국회의 활동이 아닙니다.

Q10 대통령 선출과 정부 수립 선포는 같은 일인가요?

한 줄 답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한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낯선 말

선출	여러 사람 가운데 특정한 일을 맡을 사람을 뽑는 것.
선포	중요한 결정이나 사실을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
정부 수립	나라의 행정을 맡을 정부 조직과 운영 체제를 세우는 것.

설명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는 헌법을 마련하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승만은 정부를 구성한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총선거를 했다 → 대통령이 정해졌다 → 정부가 생겼다'라고만 외우면, 중간에 제헌 국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빠뜨리기 쉽습니다. 국회 구성과 헌법 제정이 정부 수립의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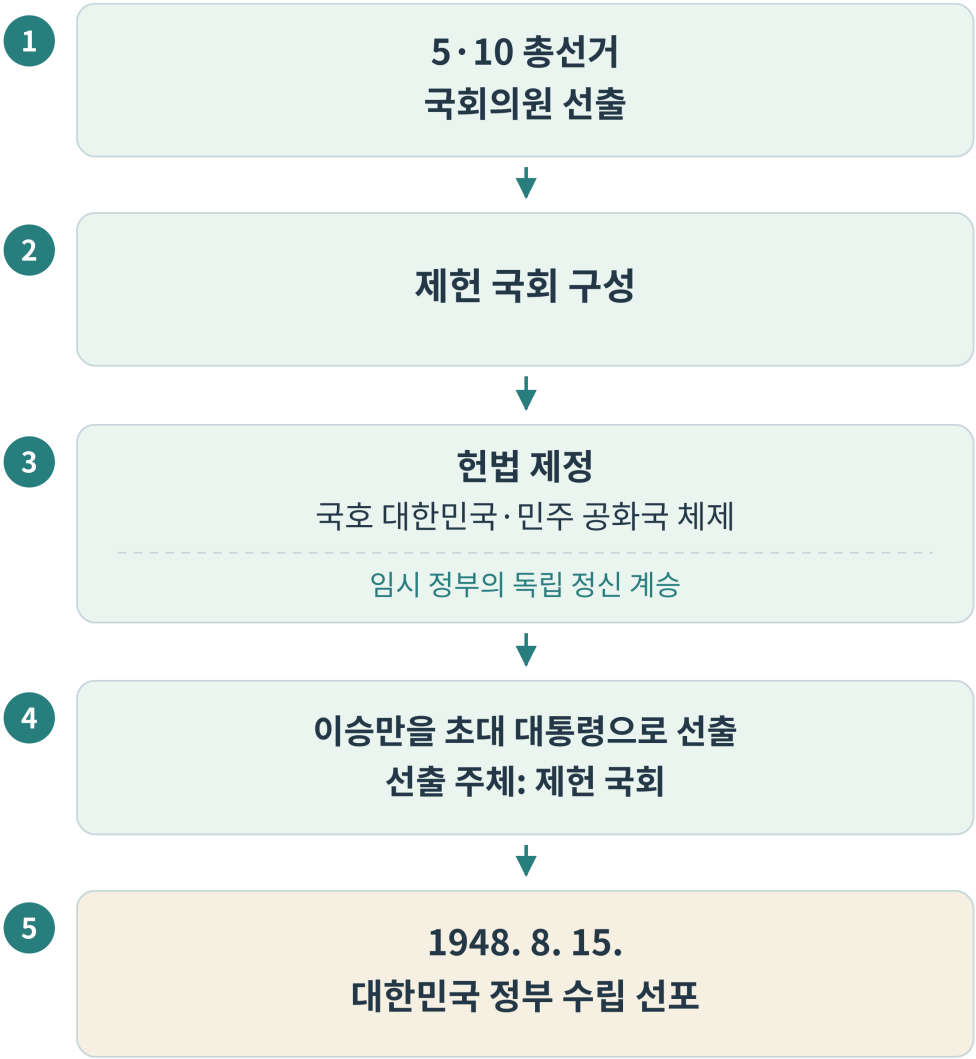
순서	사건	핵심 의미
1	5·10 총선거	국회의원 선출
2	제헌 국회 구성	국민의 대표 기관 구성
3	헌법 제정	국가 운영의 기본 틀 마련
4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제헌 국회가 대통령 선출
5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림

비유로 이해하기

동아리를 만들 때 회원들이 대표를 뽑고, 대표들이 기본 회칙을 정한 뒤 회장을 선출하고 출범을 알리는 방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정부 수립은 국민 전체의 권리와 국가 권력이 걸린 일이며 국제 관계의 영향도 받습니다. 동아리마다 절차가 다르듯 실제 역사의 모든 과정을 이 비유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선거와 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5·10 총선거와 8·15 정부 수립 선포 사이에 제헌 국회의 활동이 들어갑니다.

Q11 1945년과 1948년의 8월 15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답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광복,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설명 같은 '8·15'라도 연도를 확인해야 사건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1945년 광복은 식민 지배가 끝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광복 직후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에 주둔했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광복 당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 것은 아닙니다.

1948년에는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제헌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일과 정부 조직을 세운 일은 이어지는 역사이지만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날짜	사건	구별할 질문
1945년 8월 15일	광복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는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제헌 국회를 구성할 대표를 뽑았는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정부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는가?

같은 8월 15일, 다른 사건

1945
8. 15.
광복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남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정부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림

그 사이: 분단과 갈등
5·10 총선거 / 제헌 국회의 활동

※ 1919년 임시 정부 수립과도 다름

월일이 같아도 연도가 다르면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1945년=광복, 1948년=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과도 구별합니다.

Q12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한 줄 답 **1948년 12월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세워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낯선 말

승인	일정한 지위나 자격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합법 정부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정부.

설명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세워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이때 선거가 실제로 진행되고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조건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승인으로 남북의 분단이 사라졌다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곧바로 한반도 전역을 실제로 다스리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의 국제적 인정과 현실의 통치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유엔의 승인이 뜻하는 것	뜻하지 않는 것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세워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국제적으로 인정	남북 분단이 사라짐 / 대한민국 정부가 곧바로 한반도 전체를 실제로 다스림

시험 포인트 유엔의 승인에서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이라는 조건을 빼지 않습니다. 승인=즉각적인 통일 완성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4 핵심 정리

단원 전체 흐름

1. 건국 준비(1941년 건국 강령·조선 건국 동맹)
↓
2. 1945. 8. 15. 광복
↓
3. 38도선 남북 분할 주둔·정치 세력의 갈등
↓
4. 유엔에서 한국 문제 논의
↓
5. 1948. 5. 10. 남한 총선거
↓
6. 제헌 국회(헌법 제정·대통령 선출)
↓
7. 1948. 8. 15. 정부 수립 선포
↓
8. 1948. 12. 유엔의 승인

이 흐름의 화살표는 사건의 앞뒤 순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앞 사건 하나만이 뒤 사건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름과 주체 구별

이름	주체·성격	핵심 내용
대한민국 건국 강령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발표한 국가 건설 계획	1941년, 민주 공화정·보통 선거 등의 방향 제시
카이로·포츠담 선언	연합국의 국제적 선언	한국 독립의 방침을 밝히고 확인
조선 건국 동맹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된 국내 조직	광복과 새 나라 건설 준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광복 직후의 국내 건국 준비 단체	조선 건국 동맹에서 발전
제헌 국회	5·10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	국호 결정·헌법 제정·초대 대통령 선출

이름	주체·성격	핵심 내용
미군·소련군	광복 직후 남북에 주둔한 외국 군대	38도선 남쪽 미군·북쪽 소련군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선거 감시를 위해 유엔이 보낸 기구	남북한 선거 감시를 계획했으나 북한 지역 접근이 막힘

세 번의 '나라 세우기' 관련 사건

시기	사건	서로 다른 점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일제 강점기에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이끌 정부를 세움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	임시 정부가 광복 뒤 국가 건설 계획을 발표함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광복 뒤 총선거·제헌 국회·헌법 제정 등을 거쳐 정부가 출범함

혼동 바로잡기

혼동하기 쉬운 말	바르게 고친 말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날 곧바로 광복을 맞았다.	독립 방침 발표와 1945년의 실제 광복은 다르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1948년의 정부가 출범했다.	광복 뒤 분단과 갈등, 선거와 헌법 제정의 과정을 거쳤다.
5·10 총선거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았다.	국회의원을 뽑았고, 뒤에 제헌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했다.
헌법은 국민만 지키면 되는 규칙이다.	국가 기관도 헌법이 정한 권한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의 승인으로 남북이 곧 통일되었다.	정부의 국제적 인정과 남북의 통일은 다른 문제이다.

5 확인 문제

확인 01 객관식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광복 뒤의 국가 건설 방향을 담아 발표한 문서를 고르면?

① 포츠담 선언 ② 대한민국 건국 강령 ③ 제헌 헌법 ④ 카이로 선언 ⑤ 강화도 조약

확인 02 객관식

자료 속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독립운동을 이어 가던 한 조직은 일제의 지배가 끝난 뒤의 정치 체제를 구상했다. 민주 공화정을 세우고 보통 선거를 실시한다는 방향도 마련했다.

① 일제의 항복 이후에만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② 이미 제헌 국회를 구성해 대통령을 선출했다.
③ 왕이 주권을 독점하는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
④ 독립을 위한 활동과 독립 뒤의 국가 건설 준비를 함께 했다.
⑤ 국제기구가 한국의 국회의원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확인 03 OX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자 같은 날 일제의 식민 지배가 끝나 광복을 맞았다. (O / X)

확인 04 객관식

1945년 광복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일본의 항복을 직접적인 계기로,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의미도 함께 살펴야 한다.
② 임시 정부가 건국 강령을 발표하자 즉시 일제의 식민 통치가 끝났다.
③ 독립운동은 광복과 관계없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④ 우리 독립군의 힘만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다.
⑤ 광복 당일 남북한 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확인 05 단답형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국내에서 광복과 새 나라 건설을 준비한 비밀 조직의 이름을 쓰시오.

답 _____

확인 06 객관식

조선 건국 동맹과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임시 정부가 1941년 발표한 두 선언의 이름이다.

② 5·10 총선거에서 서로 경쟁한 두 국회이다.

③ 미국과 소련이 각각 보낸 군대의 이름이다.

④ 제헌 국회가 정부 수립 뒤 차례로 바꾼 이름이다.

⑤ 광복을 준비한 국내 조직이 광복 뒤 건국 준비 단체로 발전한 관계이다.

확인 07 객관식

광복 직후 한반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① 북위 38도선 북쪽에는 미군, 남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했다.

② 미군과 소련군이 물러난 뒤에야 일본의 항복이 알려졌다.

③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했다.

④ 유엔이 국회의원들을 임명하여 남북한에 같은 정부를 세웠다.

⑤ 남북한 주민이 함께 실시한 대통령 선거로 분단이 해소되었다.

확인 08 짧은 서술형

광복 뒤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 어려웠던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 쓰시오.

조건 국내의 상황과 국외 세력의 영향을 각각 하나 이상 연결할 것.

답 _____

_____

확인 09 객관식

다음 설명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 1948년 5·10 총선거에서는 남북한 전역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였다.

① 선거의 해는 1948년이 아니라 1941년이었다.
② 선거는 남한에서 실시되었고, 제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③ 선거는 북한에서만 실시되었고, 국회의원은 연합국이 임명했다.
④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을 선출했다.
⑤ 선거는 정부 수립 선포가 끝난 다음 해에 실시되었다.

확인 10 단답형

5·10 총선거로 구성되어 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만든 국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답 _____

확인 11 객관식

제헌 국회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②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③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④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 독립의 방침을 밝혔다.
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 헌법을 마련하였다.

확인 12 OX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원칙을 정하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기관도 헌법을 따라야 한다. (O / X)

확인 13 객관식

다음 학생의 설명을 바로잡은 것으로 옳은 것은?

"초대 대통령도 오늘날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이 직접 뽑았겠지?"

① 1948년 초대 대통령은 제헌 국회에서 선출하였다.

② 1948년 초대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임명하였다.

③ 5·10 총선거는 초대 대통령을 직접 뽑은 선거였다.

④ 카이로 선언에서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결정하였다.

⑤ 유엔이 선거 없이 초대 대통령을 임명하였다.

확인 14 순서 배열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로 쓰시오.

(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나)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 (다) 5·10 총선거 (라) 광복

답 _____

확인 15 객관식

1948년 정부 수립의 과정을 정리할 때, 총선거 뒤에 이어진 제헌 국회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들일 38도선을 처음 그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상하이에서 처음 조직했다.

③ 조선 건국 동맹을 비밀리에 조직했다.

④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여 일본에 항복을 요구했다.

⑤ 국가 운영의 기본 법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을 선출했다.

확인 16 객관식

다음 두 날짜와 사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1945년 8월 15일 (나) 1948년 8월 15일

① (가) 5·10 총선거 — (나) 광복

② (가) 정부 수립 선포 — (나) 건국 강령 발표

③ (가) 광복 — (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④ (가) 건국 강령 발표 — (나) 제헌 국회의원 선거

⑤ (가) 임시 정부 수립 — (나) 카이로 선언 발표

확인 17 단답형

다음 빈칸에 유엔이 내린 결정을 쓰시오.

유엔은 처음에 남북한 총선거를 계획했다. 그러나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북한 지역 방문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엔은 ( )고 결정했다.

답 _____

확인 18 객관식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승인 당일 남북한 주민이 함께 대통령을 새로 뽑았다.

② 국제적 인정의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남북의 분단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③ 승인 이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지 않았다.

④ 승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역을 실제로 통치했다.

⑤ 유엔이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작성했다는 뜻이다.

확인 19 객관식

다음 자료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한 문서는 독립운동을 하던 정부가 광복 뒤의 국가 건설 방향을 담아 발표했다. 다른 문서는 광복 뒤 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원칙을 정해 만들었다.

① 두 문서는 모두 연합국이 발표한 국제 선언이다.

② 두 문서는 모두 1945년 광복 당일 작성되었다.

③ 앞 문서는 제헌 헌법, 뒤 문서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다.

④ 앞 문서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 뒤 문서는 제헌 헌법이다.

⑤ 앞 문서는 일본의 항복 문서, 뒤 문서는 조선 건국 동맹의 이름이다.

확인 20 짧은 서술형

“1945년에 광복을 맞았으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같은 해에 완료되었다.”라는 설명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조건 두 사건의 의미를 구별하고, 정부 수립 연도와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거친 과정(선거, 국회 활동 등)을 하나 이상 넣을 것.

답 _____

_____

6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01	②	11	④
02	④	12	O
03	X	13	①
04	①	14	(나) → (라) → (다) → (가)
05	조선 건국 동맹	15	⑤
06	⑤	16	③
07	③	17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다
08	해설의 예시 답안 참고	18	②
09	②	19	④
10	제헌 국회	20	해설의 예시 답안 참고

7 정답과 해설

서술형은 뜻이 같은 표현도 인정합니다. 조건에 맞게 필수 내용을 연결했는지 확인하세요.

01 객관식 정답 ②

① **오답**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이 발표했습니다.
② **정답** **임시 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여 독립 뒤 나라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③ **오답** 제헌 헌법은 광복 뒤인 1948년 제헌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④ **오답** 카이로 선언의 주체는 연합국입니다.
⑤ **오답** 강화도 조약은 개항과 관련된 조약입니다.

다시 볼 곳 **Q01·Q02·Q09**

02 객관식 정답 ④

① **오답** 자료의 조직은 광복 이전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② **오답** 광복 뒤의 나라를 구상한 것이지, 1948년 제헌 국회가 이미 구성된 상황이 아닙니다.
③ **오답** 민주 공화정은 왕의 주권 독점과 다릅니다.
④ **정답**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과 이후의 국가 운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⑤ **오답** 보통 선거는 국민의 선거 참여에 관한 원칙이며 국제기구의 의원 임명이 아닙니다.

다시 볼 곳 **Q01**

03 OX 정답 X

카이로 선언은 1943년 한국 독립의 방침을 밝힌 선언입니다. 실제 광복은 1945년 일본의 항복을 계기로 맞았습니다. 독립 방침의 발표와 실제 식민 지배의 끝을 구별합니다.

다시 볼 곳 **Q02**

04 객관식 정답 ①

① **정답** **광복의 직접적 계기와 독립운동이 이어 온 노력의 의미를 함께 설명합니다.**
② **오답** 건국 강령 발표는 1941년이며 광복은 1945년입니다.
③ **오답** 독립운동은 독립 의지와 건국 준비를 이어 온 노력이므로 의미를 지울 수 없습니다.
④ **오답** 일본의 패전은 연합국과의 전쟁이라는 국제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⑤ **오답** 5·10 총선거는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다시 볼 곳 **Q01~Q03·Q08**

05 단답형 **정답 조선 건국 동맹**

여운형·국내·비밀 조직·광복 준비가 단서입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광복 직후로 구별합니다. '건국 동맹'도 인정합니다.

다시 볼 곳 **Q04**

---

06 객관식 **정답 ⑤**

① **오답** 두 이름은 문서가 아니라 국내 건국 준비 조직의 이름입니다.
② **오답** 두 국회나 선거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③ **오답** 미국·소련의 군대가 아닙니다.
④ **오답** 제헌 국회의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⑤ **정답** **조선 건국 동맹은 광복 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했습니다.**

다시 볼 곳 **Q04**

---

07 객관식 **정답 ③**

① **오답** 주둔 지역이 뒤바뀌었습니다.
② **오답** 광복 뒤 미군·소련군이 주둔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모두 철수한 뒤 광복한 것이 아닙니다.
③ **정답** **38도선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④ **오답** 유엔이 의원을 임명해 남북에 같은 정부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⑤ **오답** 남북이 함께 대통령을 뽑아 분단을 해결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시 볼 곳 **Q05·Q07**

---

08 짧은 서술형

예시 답안 국내 정치 세력들이 나라의 체제와 정부 수립 방법을 두고 갈등했고, 미국과 소련도 남북에 주둔하며 각각 자신에게 협조적인 정부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① 국내 정치 세력 간의 체제·정부 수립 방식 등에 관한 갈등 ② 미·소의 분할 주둔이나 이해관계 대립. 두 요소를 정부 수립의 어려움과 연결하면 인정합니다. '서로 의견이 달랐다'만 쓰면 국외 요인이 빠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시 볼 곳 **Q05·Q06**

---

09 객관식 **정답 ②**

① **오답** 1948년이라는 연도는 맞습니다.
② **정답** **지역은 남한, 선출 대상은 국회의원입니다. 두 오류를 모두 고쳤습니다.**
③ **오답** 북한에서만 실시한 선거가 아니며 의원 임명도 아닙니다.
④ **오답** 강령은 발표하는 문서로, 선출하는 직위가 아닙니다.
⑤ **오답** 총선거는 정부 수립 선포보다 먼저 실시되었습니다.

다시 볼 곳 **Q07·Q08**

---

10 단답형 **정답 제헌 국회**

5·10 총선거로 구성되어 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만든 국회입니다. '국회'만 쓰면 제헌이라는 성격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제헌 국회'로 완성합니다.

다시 볼 곳 **Q08·Q09**

---

11 객관식 **정답 ④**

① **오답** 헌법 제정은 제헌 국회의 활동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의 답이 아닙니다.
② **오답** 국호 결정도 제헌 국회의 활동입니다.
③ **오답** 초대 대통령 선출도 제헌 국회의 활동입니다.
④ **정답** **카이로 선언은 제헌 국회 구성 이전에 연합국이 발표했습니다.**
⑤ **오답**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 헌법을 마련한 것은 제헌 국회의 활동입니다.

다시 볼 곳 **Q02·Q09·Q10**

---

12 OX **정답 O**

헌법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도 기준이 됩니다. 국민에게만 의무를 지우고 국가 기관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다시 볼 곳 **Q09**

---

13 객관식 **정답 ①**

① **정답** **당시 초대 대통령은 제헌 국회에서 선출했습니다.**
② **오답** 일본 정부의 임명이 아닙니다.
③ **오답** 5·10 총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④ **오답**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⑤ **오답** 유엔이 초대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볼 곳 **Q08·Q10**

---

14 순서 배열 **정답 (나) → (라) → (다) → (가)**

건국 강령 발표(1941) → 광복(1945.8.15.) → 5·10 총선거(1948.5.10.) → 정부 수립 선포(1948.8.15.) 입니다.

다시 볼 곳 **Q01·Q03·Q10·Q11**

---

15 객관식 **정답 ⑤**

① **오답** 38도선을 경계로 한 분할 주둔은 제헌 국회 구성 이전의 일입니다.
② **오답** 상하이 임시 정부 수립은 1919년입니다.
③ **오답** 조선 건국 동맹은 광복 전 국내에서 조직되었습니다.
④ **오답**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이 발표했습니다.
⑤ **정답** **제헌 국회는 헌법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다시 볼 곳 **Q09·Q10**

---

16 객관식 **정답 ③**

① **오답**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이며, 광복은 1945년입니다.
② **오답** 정부 수립 선포는 1948년, 건국 강령 발표는 1941년입니다.
③ **정답** **1945년 광복과 1948년 정부 수립 선포를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④ **오답** 건국 강령 발표는 1941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입니다.
⑤ **오답** 임시 정부 수립은 1919년, 카이로 선언은 1943년입니다.

다시 볼 곳 **Q11·핵심 정리**

---

17 단답형 **정답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다**

유엔은 처음부터 남한만의 선거를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단의 북한 지역 방문이 막히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다'도 인정합니다. 단순히 '선거를 한다'라고만 쓰면 결정이 바뀐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빈칸의 '고 결정했다'에 이어지도록 '실시한다'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 곳 **Q07**

---

18 객관식 **정답 ②**

① **오답** 승인이 새 남북 공동 대통령 선거를 뜻하지 않습니다.
② **정답** **정부의 국제적 인정과 분단의 해소는 다른 문제입니다.**
③ **오답** 정부 수립 선포 뒤 유엔의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④ **오답** 승인만으로 한반도 전체의 실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⑤ **오답** 건국 강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다시 볼 곳 **Q12**

---

19 객관식 **정답 ④**

① **오답** 두 문서는 모두 연합국의 선언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② **오답** 건국 강령은 1941년, 제헌 헌법은 1948년입니다.

③ **오답** 앞뒤 문서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④ **정답** **독립운동을 하던 임시 정부의 국가 건설 계획과, 광복 뒤 제헌 국회의 기본 법을 구별했습니다.**

⑤ **오답** 국가 건설 계획을 항복 문서로 볼 수 없고, 뒤 문서는 조직의 이름도 아닙니다.

다시 볼 곳 **Q01·Q09**

---

20 짧은 서술형

예시 답안 1945년 광복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일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총선거와 제헌 국회의 헌법 제정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채점 기준 ① 광복의 의미 ② 정부 수립 연도 1948년 ③ 5·10 총선거·제헌 국회 구성·헌법 제정·초대 대통령 선출 중 하나 이상.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구별하고 세 요소가 들어가면 인정합니다.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이다'만 쓰면 의미와 과정이 빠집니다. 날짜를 함께 쓸 경우 정부 수립 선포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다시 볼 곳 **Q08~Q11**
